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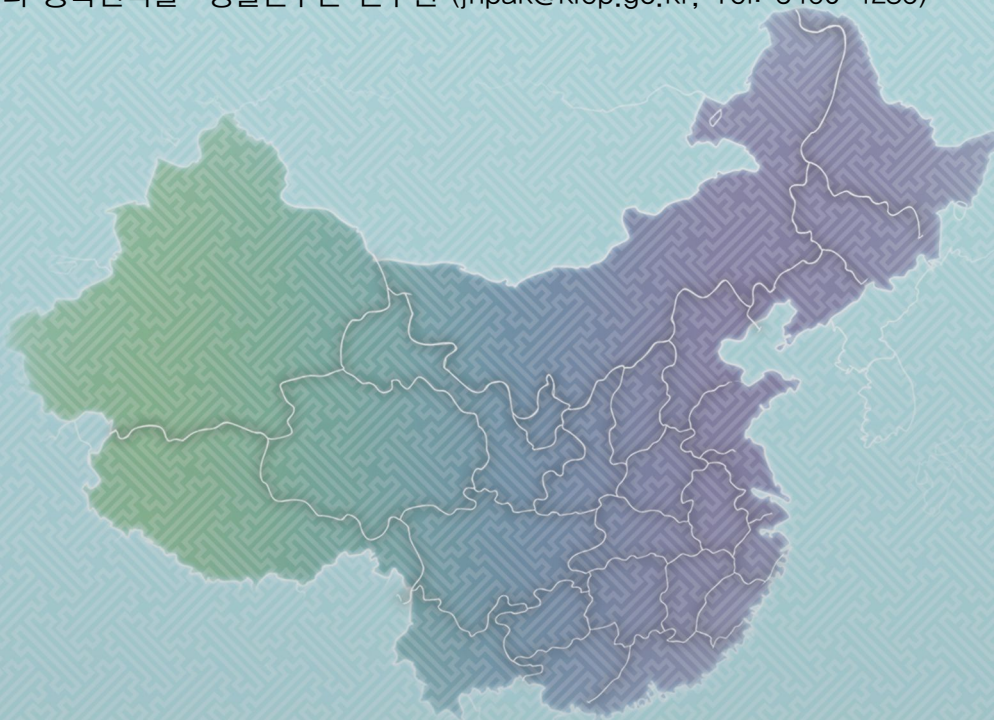
2013년 2월 15일 | Vol. 4 No. 2

ISSN 2093-3282

중국 지방 당대회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김부용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박진희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jhpak@kiep.go.kr, Tel: 3460-1285)



차 례 ●●●

1. 지방 당대회와 18차 전국 당대회에 따른 지방 당서기 변동
2. 지방 당대회 「보고」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

- 지방 당대회와 18차 전국 당대회의 개최로 향후 중국 31개 지역을 이끌 당서기가 결정됨.
 - 새로운 지방 당서기들은 전문성이 강하고, 사회과학 인문학 전공자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또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지역에서 당서기직을 맡은 경험이 있어,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중국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가게 됨.
- 지방 당대회 「보고」는 향후 5년간 지방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본 지방 정부의 경제정책 중점은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 △ 생태 문명 건설 등임.
 - 이는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식에서는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므로 지방의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경우, 베이징시 등의 연해지역에서는 혁신을, 지린성 등의 내륙지역에서는 공업화와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융합을, 자원이 풍부한 산시성 등의 지역에서는 자원의존형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비자원의존형 산업의 발전을, 변경지역은 중앙정부가 특별히 부여한 정책에 의존한 성장을 강조함.
-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 지방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잘 포착해야 함.
 - 중국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어,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각 지방정부가 급여제도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 개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내수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해준과 동시에 현지 투자기업들에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과거와 달리 각 지방정부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현지경영에서 환경의식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와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 지도자와의 협력과 함께 지방 지도자와의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중국은 당 중앙을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으로 지방에서의 업무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므로, 중국 지방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향후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할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간 유대를 쌓을 수 있음.

1. 지방 당대회와 18차 전국 당대회에 따른 지방 당서기 변동

■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하 18차 전국 당대회)가 열리기 전, 각 지역(성·직할시·자치구)¹⁾에서 당대회가 차례로 열려 향후 중국 31개 지역을 이끌 지방 당서기가 선출됨.²⁾

- 2011년 10월 랴오닝성을 시작으로 2012년 7월 베이징을 끝으로 약 10개월에 걸쳐 중국 각 지역에서 당대회가 열려, 31명의 당서기가 선출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임 당서기가 재선출 되었으며, 베이징(北京)시만 예외적으로 당서기가 교체됨.
 - 베이징시의 경우 전 당서기 류치(劉淇)가 연령 제한으로 퇴임하게 되어, 당부서기였던 귀진룡(郭金龍)이 당서기로 승진함.

■ 18차 전국 당대회가 열린 후, 일부 지방 당서기의 승진 및 보직 변동에 따라 11개 지역³⁾의 지방 당서기가 교체됨.

- 주요 직할시와 광둥(廣東)성과 같은 핵심 지역의 당서기가 모두 교체되는 큰 변화가 이뤄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당 중앙의 요직으로 승진됨.
 -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 등 3개 직할시의 전임 당서기인 위정성(俞正聲), 장가오리(張高麗), 장더장(張德江)이 모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하여, 각각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 국무원 상무부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내정됨.
 - 중국 지방정부 중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둥성의 전임 당서기 왕양(汪洋)은 이번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 요직 중 하나인 국무원 부총리직에 내정되어 광둥성 당서기직에서 물러남.
- 상하이시, 저장(浙江)성, 지린(吉林)성, 산시(陝西)성 4개 지역은 베이징시와 마찬가지로 전임 당부서기가 당서기로 순조롭게 승진함.
- 중국의 차기(6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쑨정차이(孫政才)와 후춘화(胡春華)는 이번 교체 시 각각 핵심 지역인 충칭시와 광둥성 당서기직을 맡아 주목받음.

-
- 1) 이하 내륙·연해, 동북·동부·중부·서부 등 단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는 지역 혹은 지방은 31개 성·직할시·자치구를 의미함.
 - 2) 지방 당대회는 전국대표대회와 마찬가지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지방 당위원을 선출함. 새롭게 선출된 지방 당위원은 지방 당대회 폐회 직후 지방 당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지역의 당서기와 부서기를 선출함. 지방 당서기 선거는 형식적인 절차로, 중앙에서 임명한 단일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것임.
 - 3)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지린성, 푸젠(福建)성, 쓰촨(四川)성, 산시성, 저장성, 광둥성, 내이멍구(內蒙古)자치구 및 광시(廣西)자치구임.

- 4개 직할시를 비롯한 핵심 지역의 당서기직은 큰 이변이 없는 이상 통상적으로 중앙정치국 위원이 맡으며, 당 내 승진의 발판이 되는 요직임.⁴⁾
- 쑨정차이와 후춘화는 5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각각 지린성에 이어 충칭시에서, 네이멍구자치구에 이어 광둥성에서 당서기직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중국 최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데 유리한 이력을 쌓게 됨.
- 이들이 향후 충칭시와 광둥성에서 보여줄 행보는 중국 차기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임.

■ 새로운 지방 당서기들은 전문성이 강하고, 사회과학·인문학 전공자 비율이 높으며, 지방 실무경험이 많다는 특징이 있음.

- 31명의 지방 당서기 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16명에 달할 정도로 고학력자가 많은 편임.
- 충칭시 당서기 쑨정차이는 농학박사 학위를 소지한 농업 전문가로, 옥수수에 관한 연구로 베이징과학기술 진보상을 받을 정도로 농업에 대한 지식이 해박함.
- 특히 경제학, 경영학, 중문학 등 문과 전공자가 20명 정도로 이과 전공자에 비해 다수를 차지함.
- 이들은 대부분 한 개 이상의 지역에서 당서기직을 맡은 경험이 있어 풍부한 지방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중국 각 지역을 이끌어 나가게 됨.

표 1. 지방 당서기 명단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성명	출생연도	전공과 학력	주요 경력
동북	랴오닝(遼寧)성	왕민(王珉)	1950	공학 박사	前 지린성 당서기
	지린(吉林)성	왕루린(王儒林)	1953	경제학 석사	前 지린성 당부서기·성장
	헤이룽장(黑龍江)성	지빙쉬안(吉炳軒)	1951	중문학 학사	前 중앙선전부 부부장
동부	베이징(北京)시	귀진룽(郭金龍)	1947	물리학 학사	現 중앙정치국 위원 前 베이징시 당부서기·시장 前 티벳자치구·안후이성 당서기
	톈진(天津)시	쑨춘란(孫春蘭)	1950	경영학 석사	現 중앙정치국 위원 前 전국총공회 서기 前 푸젠성 당서기
	허베이(河北)성	장칭리(張慶黎)	1951	정치학 석사	前 티벳자치구 당서기
	산둥(山東)성	장이강(姜異康)	1953	경영학 석사	前 충칭시 당부서기

4) 丁望(2012), 「世代的量化與胡錦濤的接班群」, 中共『十八大』精英甄補與政治繼承: 變遷政策與挑戰」國際研討會. (4월 21일).

표 1. 계속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성명	출생연도	전공과 학력	주요 경력
동부	상하이(上海)시	한정(韓正)	1954	경제학 석사	現 중앙정치국 위원 前 상하이시 당부서기·시장
	장쑤(江蘇)성	뤄즈쥔(羅志軍)	1951	법학 석사	前 장쑤성 당부서기·성장
	저장(浙江)성	샤바오룽(夏寶龍)	1952	경제학 박사	前 저장성 당부서기·성장
	푸젠(福建)성	유취안(尤權)	1954	경제학 석사	前 국무원 상무 부비서장
	광둥(廣東)성	후춘화(胡春華)	1963	중문학 학사	現 중앙정치국 위원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前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
중부	하이난(海南)성	뤄바오밍(羅保銘)	1952	사학 석사	前 텐진시 선전부 부장 前 하이난성 당부서기·성장
	산시(山西)성	위안춘칭(袁純淸)	1952	경영학 박사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前 산시성 당부서기·성장
	안후이(安徽)성	장바오순(張寶順)	1950	경제학 석사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서기 前 산시성 당서기
	장시(江西)성	쑤룽(蘇榮)	1948	경제학 석사	前 칭하이성 당서기 前 간쑤성 당서기
	허난(河南)성	루잔공(盧展工)	1952	건축학 학사	前 전국총공회 부주석 前 푸젠성 당서기
	후베이(湖北)성	리홍중(李鴻忠)	1956	사학 학사	前 선전(深川)시 당서기 前 후베이성 당부서기·성장
서부	후난(湖南)성	저우창(周強)	1960	법학 석사	前 공청단 중앙서기처 제1서기 前 후난성 당부서기·성장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왕쥔(王君)	1952	공학 학사	前 산시성 당부서기·성장
	광시(廣西)자치구	펑칭화(彭淸華)	1957	경영학 박사	前 중앙조직부 연구실 주임 前 주(駐)홍콩 연락관공실 주임
	충칭(重慶)시	쑤정차이(孫政才)	1963	농학 박사	現 중앙정치국 위원 前 국무원 농업부 부장 前 지린성 당서기
	쓰촨(四川)성	왕둥밍(王東明)	1956	철학 학사	前 중앙조직부 부부장 前 중앙기구편제위원회 판공실 주임
	구이저우(貴州)성	자오키즈(趙克志)	1953	정치학 석사	前 구이저우성 당부서기·성장
	윈난(雲南)성	친광룽(秦光榮)	1950	공학 석사	前 윈난성 당부서기·성장
	티벳(西藏)자치구	첸취안궈(陳全國)	1952	정치학 학사	前 허베이성 당부서기·성장
	샨시(陝西)성	자오정용(趙正永)	1951	물리학 학사	前 산시성 당부서기·성장
	간쑤(甘肅)성	왕싼원(王三運)	1955	경제학 석사	前 안후이성 당부서기·성장
	칭하이(青海)성	창웨이(強衛)	1953	공학 석사	前 베이징시 당부서기·공안국 국장
	닝샤(寧夏)자치구	장이(張毅)	1950	경제학 학사	前 헤이룽장성 당부서기 前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신장(新疆)자치구	장춘셴(張春賢)	1953	공학 석사	現 중앙정치국 위원 前 국무원 교통운수부 부장 前 후난성 당서기

주: 2012년 4월에 열린 구이저우성 지방 당대회에서 당서기인 리잔수(栗戰書)가 재선출되었으나, 그가 중앙판공청 주임직을 맡게 됨에 따라 2012년 7월 자오키즈가 새롭게 취임함.

자료: 언론보도 종합.

2. 지방 당대회 「보고」를 통해 본 경제정책 방향

■ 지방 당대회 「보고」는 향후 5년간 지방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 당대회 「보고」는 지난 5년간 당의 정책성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12차 5개년 계획」이 정부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인 데 비해, 당대회 「보고」는 당의 정책 중점을 보다 잘 반영함.
- 지방 당대회 「보고」를 통해 본 지방의 경제정책 중점은 △ 경제발전방식 전환 △ 민생 개선 △ 개혁 심화 △ 개방 확대 △ 생태문명 건설 등임.
- 이러한 정책들은 2012년 말 각 지역에서 열린 지방 당위원회 전체회의 및 경제공작회의⁵⁾에서 재차 강조됨.

가. 경제발전방식 전환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12차 5개년 계획기간 혹은 보다 긴 기간 중국 경제발전의 주된 기조로서 각 지방에서 모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주 내용은 △ 내수 확대 △ 도시화 △ 산업구조 고도화 △ 혁신 등임.

- 내수 확대는 민간 소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소비수요를 발굴하며,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 질과 효율을 높일 것을 강조함.
- 도시화는 도시군 형성, 신도시 및 중소도시 건설, 도농 접경지역 도시화 등을 통해 추진함.
- 특히 도시군과 특색 있는 소도시를 육성함으로써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음.⁶⁾
- 산업구조 고도화는 전통산업을 개조 및 업그레이드하고 전략적 신흥산업⁷⁾과 서비스업⁸⁾을 발전시

5) 해당 지역의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매년 연말에 개최되며, 해당 지역 당서기와 부당서기, 정협주석과 같은 최고 지도부가 참석함.

6) 즉 거점도시 중심으로 여러 도시를 묶어 도시군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여건이 되는 현(縣)급 도시를 중등도시로 발전시키고, 기반이 있는 중심 진(鎭)은 소도시로 육성하여 중심 도시의 기능을 이어받고 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것임.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는 성(省)-시(市)-현(縣)-진(鎭)-향(鄉)-촌(村)으로 구성됨.

7) 중앙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기축으로 하되,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중점을 둘 산업을 약간씩 조정함.

키는 동시에 농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

- 혁신은 과학기술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입을 늘려, 자주혁신과 동시에 기술도입을 통한 혁신도 함께 추진하여, 지주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

■ 그러나 각 지역은 해당 지역이 처한 경제발전 수준이나 경제구조, 산업구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베이징시, 산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등 연해(동부)지역의 경우 주로 혁신에 기반한 경제발전을 강조함.
- 지린성, 헤이룽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쓰촨성을 비롯한 내륙(동북, 중부, 서부)지역의 경우 대부분 공업화와 정보화가 융합된 ‘신행 공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및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을 강조함.
- 중부지역에 위치한 허난성의 경우 중위안(中原)경제구 건설을 통한 도시화를 특히 강조함.
- 관광소득이 GR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하이난성은 관광산업을 필두로 하는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표 2. 경제발전방식 전환 중점 분야의 지역간 비교

중점 분야	성·직할시·자치구
혁신	베이징시, 산둥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정보화와 공업화, 도시화, 농업 현대화, 서비스업의 동반 발전	톈진시, 허베이성, 푸젠성, 하이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장시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광시자치구, 충칭시, 쓰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자치구,
자원의존형 산업 업그레이드 및 비자원의존형 산업 발전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칭하이성, 신장자치구
중앙정부의 특수 지원정책	티벳자치구, 신장자치구
내수소비 확대	베이징시,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광둥성, 랴오닝성, 안후이성, 허난성, 윈난성, 산시성

자료: 지역별 당대회 「보고」에서 정리.

-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칭하이성, 신장자치구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자원의존형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자원의존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돌파구로 삼고 있음.

8) 서비스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금융, 유통, 물류 등의 생산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

- 석탄자원이 풍부한 산시성의 경우, 여전히 석탄산업에 의존해 경제를 발전시키되, 단순 채굴업에서 가공업으로, 고투입과 고오염에서 청결 채굴과 고효율 이용으로 전환하며, 1·2·3차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함.
- 변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티벳자치구는 중앙정부가 특별히 부여한 재정과 세무, 금융, 투자, 인재 등 면에서의 지원정책과 프로젝트에 의존한 성장을 강조함.
- 한편 경제성장의 3대 엔진인 소비, 투자, 수출의 역할과 관련해, 베이징시,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등의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2개 지역만이 소비의 역할 확대를 언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투자를 강조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소 괴리가 있음.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은 내륙지역보다는 연해지역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음.

- 대부분 내륙지역은 향후 5년간 GRDP(지역내총생산) 규모를 2배로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등 여전히 ‘양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연해지역은 경제총량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혁신과 업그레이드를 강조하는 등 ‘질적 성장’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음.

나. 민생 개선

■ 내수 확대의 필요성과 소득불균형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민생 개선 또한 각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의제임.

- 많은 지역의 당대회 「보고」에서는 민생 ‘행복’을 목표로 제시함.
- 티벳자치구는 민생 개선이 경제·사회발전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하였으며, 후베이성은 처음으로 ‘행복 후베이’라는 개념을 언급함.
- 이 밖에 헤이룽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광둥성, 칭하이성 등 지역의 당대회 「보고」 주제는 모두 민생 ‘행복’을 적시함.

■ 각 지역에서는 민생 개선 중점 사업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강조함.

- 주민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을 확대하여 소득격차를 축소할 것을 강조함.
-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주민소득이 지역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급여제도를 개혁하며, 과도하게 높은 소득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 중에서도 최저임금기준을 향상하고, 평균임금 인상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실시하고, 공무원 임금제도를 완비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급여제도 개혁이 특히 강조됨.
- 또한 도농 주민의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키고, 농민소득 증대 경로를 확충하는 것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중요한 방안임.

■ 주민소득 증대 외에 △ 취업 확대 △ 교육 발전 △ 보장성 주택 건설 △ 의료시스템 개혁 심화 △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등도 민생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

-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지방정부가 창업을 장려할 것이라 밝힘.
- 상하이시는 보장성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동시에 부동산시장 과열 억제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밝혔으며, 광둥성도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임.
- 중국정부는 최근 약 3년간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에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완화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있음.⁹⁾

표 3. 주민소득 증대 방안의 지역간 비교

소득 증대 방안		성·직할시·자치구
소득분배제도 개혁	지역총소득에서의 주민소득 비중 확대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장쑤성, 푸젠성, 장시성, 산둥성, 허난성, 후베이성, 충칭시
	급여제도 개혁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상하이시,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후베이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충칭시, 쓰촨성, 윈난성, 산시성,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과도하게 높은 소득 조정	장쑤성
근로소득 혹은 재산소득 증가		톈진시, 네이멍구자치구,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장쑤성, 안후이성, 장시성, 산둥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구이저우성, 간쑤성, 칭하이성
농민소득 증대 경로 확충		톈진시, 네이멍구자치구, 상하이시, 저장성, 광시자치구, 간쑤성, 칭하이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자료: 지역별 당대회 「보고」에서 정리.

9) 김부용·박진희(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정책과 지역별 대응 현황」, 중국성별동향 브리핑, Vol. 3, No.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참고.

다. 개혁 심화

■ 각 지역에서는 △ 소득분배제도 개혁 △ 국유경제 개혁 △ 세제 개혁 △ 호적제도 개혁 등의 심화를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관건으로 보고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임.

- 개혁과 관련해 거의 모든 지역이 소득분배제도를 개혁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역점을 둠.
- 국유자산에 대한 감독 관리체제를 개선하고, 국유기업 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며, 민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국유경제 개혁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조되고 있음.
- 자원세, 부가가치세, 환경 관련세 등의 세제 개혁도 일부 지역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시범지역인 상하이시는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를, 자원이 풍부한 지린성, 산시성, 신장자치구 등의 지역은 자원세 개혁을 심화할 계획임.
- 도농 통합 발전을 위한 호적제도 개혁도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의 첫 번째 시범지역인 충칭시의 경우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외지인의 현지 호적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과 주거, 사회보험, 의료, 자녀교육 등의 사회공공서비스를 호적인구에서 상주인구로 확대할 것을 밝힘.
- 이 밖에 산둥성, 광둥성, 광시성, 윈난성 등의 많은 지역들이 재정과 금융 시스템 개혁을 언급함.
 - 서남부 변경지역에 위치한 윈난성의 경우 인민폐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확대를 강조하기도 함.

표 4. 중점 개혁 분야의 지역간 비교

개혁 분야		성·직할시·자치구
소득분배제도		거의 모든 지역(후난성, 구이저우성, 티베트자치구 제외)
국유경제		거의 모든 지역(네이멍구자치구, 광시자치구, 하이난성 제외)
호적제도		톈진시, 산시성, 안후이성, 허난성, 후난성, 충칭시, 쓰촨성, 간쑤성, 칭하이성
세제	부가가치세	상하이시
	자원세	산시성, 지린성, 저장성, 푸젠성, 허난성, 후난성, 광둥성, 쓰촨성, 윈난성, 간쑤성, 칭하이성, 신장자치구
	환경 관련세	산시성, 저장성, 윈난성

주: 부가가치세 개혁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개혁임.

자료: 지역별 당대회 「보고」에서 정리.

라. 개방 확대

■ 각 지역에서는 대내외 개방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임.

- 대내적으로는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내자 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역외 투자를 장려함.

- 네이멍구자치구, 허난성, 쓰촨성, 닝샤자치구 등 내륙지역은 발달한 연해지역의 산업을 적극 유치할 것임을 밝힘.
- 대외적으로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발전방식을 전환하며, 외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진출을 강화할 계획임.
- 중요한 것은 내자든 외자든 막론하고 모두 선별적인 유치를 통해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며, 이는 연해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짐.
- 가령 국제도시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구의 본부, R&D 센터, 영업센터, 결산센터 등의 설립을 환영하고 있음.

마. 생태문명 건설

- 이번 지역 당대회 「보고」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각 지역 모두 생태문명 건설을 강조한 것임.
- 많은 지역에서는 당대회 「보고」에 생태문명 건설을 하나의 독립적인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당대회 「보고」 주제에 생태문명 혹은 유사 용어를 적시하기도 함.
- 가령 장시성과 하이난성은 ‘녹색굴기’, 안후이성은 ‘양호한 생태’, 톈진시는 ‘생태도시’를 강조함.
-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는 △ 녹화를 통해 환경을 미화하고 △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며 △ 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며 △ 환경오염 처리를 강화하는 것 등임.
- 최근 베이징시, 허베이성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수처리, 생활쓰레기처리와 더불어 대기오염 처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헤이룽장성과 산시성, 네이멍구자치구, 쓰촨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자치구, 신장자치구 등 광산자원이 풍부한 지역들은 모두 저투입, 저배출, 저오염의 순환경제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티벳자치구는 모든 형식의 자원 탐사와 개발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밝힌 점이 눈에 띈.

바. 지역별 핵심 이슈

- 상술한 5개 이슈가 각 지역의 경제정책의 공통적인 중점사항이나, 지역별 핵심 이슈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당대회 「보고」 주제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음.
- 4대 직할시 중 서부지역에 위치한 충칭시를 제외한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는 모두 국제도시 건설을 강조하고 있음.

- 동북지역에 위치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진흥’을 내세우고 있어, 노후공업기지를 진흥시키는 것이 여전히 향후 5년간 이 지역의 핵심과제임.
- 서부지역인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은 모두 ‘서부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경제발전이 뒤처진 내륙지역에서는 ‘도약’, ‘추격’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띈.

표 5. 당대회 「보고」 주제 키워드로 본 지역별 경제정책 핵심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키워드
동북	랴오닝(遼寧)성	전면 진흥, 부민, 행복
	지린(吉林)성	진흥 가속화, 아름다운 생활
	헤이룽장(黑龍江)성	행복
동부	베이징(北京)시	세계도시(국제도시)
	톈진(天津)시	국제항구도시, 북부지역 경제중심, 생태도시
	허베이(河北)성	경제강성, 조화사회
	산둥(山東)성	경제·문화강성, 아름다운 생활
	상하이(上海)시	혁신, 전환, 국제대도시
	장쑤(江蘇)성	소강사회
	저장(浙江)성	창업, 혁신, 부유화
	푸젠(福建)성	조화사회, 행복
	광둥(廣東)성	개혁, 전환과 업그레이드, 행복
	하이난(海南)성	녹색굴기, 국제관광섬
중부	산시(山西)성	자원의존형 지역의 전환과 도약 발전
	안후이(安徽)성	번영, 생태, 행복, 조화사회
	장시(江西)성	추격, 녹색굴기, 부유, 조화사회
	허난(河南)성	업그레이드, 통합, 중위안경제구, 중위안굴기
	후베이(湖北)성	도약, 부민강성
	후난(湖南)성	공업화, 농업 현대화, 정보화, 도시화, 자원절약, 환경보호, 소강사회
서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부민, 강한 자치구
	광시(廣西)자치구	부민, 강한 자치구, 도약
	충칭(重慶)시	서부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소강사회 실현
	쓰촨(四川)성	서부지역 경제발전 핵심지
	구이저우(貴州)성	발전, 전환, 도약, 추격, 소강사회
	윈난(雲南)성	조화, 도약, 서남지역 개방의 교두보
	티벳(西藏)자치구	도약, 장기 안정
	산시(陝西)성	부민, 서부강성
	간쑤(甘肅)성	전환, 도약, 부민강성
	칭하이(青海)성	개혁개방, 행복
	닝샤(寧夏)자치구	조화사회, 부유, 소강사회
	신장(新疆)자치구	도약, 장기 안정

자료: 지역별 당대회 「보고」에서 정리.

3. 시사점

■ 중앙정부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지방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식에서는 지역간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므로 지방의 경제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차이는 중국이 어느 정도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고,¹⁰⁾ 지방이 중앙의 각종 개혁정책의 실행이기에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개혁·개방 초기 광둥성의 선전(深圳)시를 위시한 특구에서 이후 상하이시 푸둥(浦東)신구, 충칭시 양장신구 등으로의 확대, 부가가치세 개혁의 상하이시에서 10개 성·시로의 확대 실시¹¹⁾ 등은 모두 개혁실험의 대표적인 예임.
- 이는 또한 각 지역의 경제발전수준이나 경제구조의 차이, 지도자 성향의 차이 등에 따른 것이기도 함.
- 지도자 성향의 차이에 따른 경제정책의 차이로는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와 왕양 전 광둥성 당서기가 각자 해당 지역에서 추진한 분배 중심의 모델과 성장 중심의 모델이 대표적임.¹²⁾

■ 각 지역에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륙지역이 여전히 양적 성장을 중시하는 등 중국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음.

-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내륙지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부표 1 참고).
- 2011년의 경우 성장률 상위 10위권 중 9개 지역이 내륙지역이고, 연해지역 중에서는 텐진시가 유일했음.¹³⁾
- 소비재 소매총액, 대외무역, 고정자산투자 등 지표에서도 내륙지역이 연해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¹⁴⁾

10) 조성호 외(2012)는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달성한 요인을 시장경제체제 도입과 과감한 지방분권 추진에 의한 지역경제 육성으로 보고, 나아가 지방분권 차이를 한-중 국가경쟁력 격차로 보고 있음. 조성호·이홍규·이용환(2012), 「중국의 경제성장과 지방분권」, 『이슈&진단』, 제48호, 경기개발연구원.

11) 상하이시, 베이징시, 텐진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후베이성, 광둥성 등 8개 성급 지역과 푸젠성의 샤먼(廈門), 광둥성의 선전 등 2개 도시임.

12) 한때 충칭 모델 vs. 광둥 모델은 중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음.

13) 텐진시는 2006년부터 시작된 빈하이(濱海)신구의 개발에 힘입어 최근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차지함. 빈하이신구는 상하이시 푸둥(浦東)신구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로 지정된 국가급 신구임.

14) 특히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1~8월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 증가율은 중국 전체보다 57.2포인트 높았으며,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의 2.3%에서 2012년 1~8월에는 8.8%로 상승함. 人民網(2012. 6. 14), 「周若軍: 2011年加工貿易提供了超4000萬個直接就業崗位」.

- 이 같은 내륙지역의 빠른 성장은 중국정부의 지원정책과 연해지역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기업의 내륙지역 이전 등에서 기인한 것임.
- 중국정부는 최근 도시화와 내수 진작의 성장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내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 연해지역에서는 폐지한 세수, 융자, 토지 등 면에서의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연해지역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이 인건비 상승(부표 2 참고)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은 향후 내륙지역에 대한 진출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해지역과 내륙지역 진출 시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함.

- 내륙지역은 향후에도 산업이전, 풍부한 자원과 시장잠재력,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 최근 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내륙지역에 잇달아 투자하면서 내륙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서부지역의 충칭시, 쓰촨성, 산시성에는 2009년 폴크스바겐, 폭스콘, ABB, Infinien 등이 신규로 진출하거나 연해지역으로부터 이전하였으며, 한국기업으로는 2012년 9월 삼성전자가 산시성 시안(西安)에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여 이슈가 되었음.
- 그러나 내륙지역이 물류여건, 산업체인 등이 아직 미비한 점에 유의해야 하며, 지역과 업종에 따라 서로 차이가 크므로 진출 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함.
- 한편 연해지역은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혁신과 산업고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고부가가치화 전략이 필요함.

■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 개선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에 내수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현지 투자진출 기업들의 노동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소득분배개혁으로 향후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소비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 또한 도농 통합 발전으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도시민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소득과 소비가 늘어나 내수시장 진출에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그러나 급여제도 개혁에 따른 최저임금기준의 지속적인 인상과 임금단체협상제도 실시 등으로 현지 투자기업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 과거와 달리 각 지방정부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 우리 기업은 현지경영에서 환경의식을 강화해야 하는데, 동시에 이러한 지방정부의 환경 중시는 환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함.

- 많은 지방정부에서 최근 들어 환경기준을 높이고, 이를 외자기업에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 2011년 장쑤성 난징(南京)시 정부가 금호타이어에 대해 오염유발산업이라는 명목으로 내륙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그러나 지방정부가 환경을 중시하고 있고, 또한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분야를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은 향후 친환경에너지와 대체에너지, 오수처리, 쓰레기처리, 대기오염처리 등 분야에서 좋은 사업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음.

■ 끝으로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중국 차기 최고지도부와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의 지도자와의 협력과 함께 지방 지도자와의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중국은 당 중앙을 이끌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격으로 지방에서의 업무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는바,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할 이들은 대부분 지방 당서기직을 거침.¹⁵⁾
- 시진핑(習近平)은 상하이시와 저장성 당서기직을, 후진타오는 티베트자치구와 구이저우성 당서기직을 역임함.
- 이번 18차 전국 당대회에서는 지방 당서기 중 일부가 중앙정치국에 진입하였으며, 광둥성과 충칭시의 당서기인 후춘화(胡春华)와 쑤정차이(孫春蘭)는 중국 차기 최고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음.¹⁶⁾
- 중국 지방 지도자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향후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할 이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간 유대를 쌓을 수 있음.
- 한 예로, 시진핑이 2005년 저장성 당서기로서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측 인사들과 교류한 것은 상호간 이해와 유대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향후 중국 지방 지도자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함. KIEP

15) 한 곳 이상의 성급 행정구(성·직할시·자치구)에서 당서기로 활동한 경력은 향후 상무위원으로의 진급에 유리하게 작용함. 寇建文(2012), 「中国十八大中央政治局常委会人选, “中共十八大精英甄补与政治继承: 变迁 政策与挑战”国际研讨会. (4월 21일)

16) 중앙정치국에 진입한 전임 당서기는 전 지린성 당서기 쑤정차이, 전 톈진시 당서기 장가오리, 전 상하이시 당서기 위정성, 전 푸젠성 당서기 쑤춘란(孫春蘭), 전 광둥성 당서기 왕양, 전 네이멍구자치구 당서기 후춘화, 전 충칭시 당서기 장더장, 전 쓰촨성 당서기 류치바오(劉奇葆), 전 산시성 당서기 자오러지(趙樂際) 등임.

부록

부표 1. 지역별 경제성장을 추이

(단위: %)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2001~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동북	랴오닝(遼寧)성	12.4	13.1	14.2	12.2
	지린(吉林)성	12.6	13.6	13.8	13.8
	헤이룽장(黑龍江)성	11.1	11.4	12.7	12.3
동부	베이징(北京)시	12.1	10.2	10.3	8.1
	톈진(天津)시	14.6	16.5	17.4	16.4
	허베이(河北)성	11.6	10.0	12.2	11.3
	산둥(山東)성	13.3	12.2	12.3	10.9
	상하이(上海)시	12.2	8.2	10.3	8.2
	장쑤(江蘇)성	13.4	12.4	12.7	11.0
	저장(浙江)성	13.0	8.9	11.9	9.0
	푸젠(福建)성	12.1	12.3	13.9	12.3
	광둥(廣東)성	13.3	9.7	12.5	10.0
	하이난(海南)성	11.2	11.7	16.0	12.0
중부	산시(山西)성	13.0	5.4	13.9	13.0
	안후이(安徽)성	11.4	12.9	14.6	13.5
	장시(江西)성	12.1	13.1	14.0	12.5
	허난(河南)성	12.3	10.9	12.5	11.9
	후베이(湖北)성	11.5	13.5	14.8	13.8
	후난(湖南)성	11.7	13.7	14.6	12.8
서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17.8	16.9	15.0	14.3
	광시(廣西)자치구	11.9	13.9	14.2	12.3
	충칭(重慶)시	12.3	14.9	17.1	16.4
	쓰촨(四川)성	11.9	14.5	15.1	15.0
	구이저우(貴州)성	11.4	11.4	12.8	15.0
	윈난(雲南)성	9.9	12.1	12.3	13.7
	티벳(西藏)자치구	12.4	12.4	12.3	12.7
	샨시(陝西)성	13.2	13.6	14.6	13.9
	간쑤(甘肅)성	11.0	10.3	11.8	12.5
	칭하이(青海)성	12.5	10.1	15.3	13.5
	닝샤(寧夏)자치구	11.6	11.9	13.5	12.1
	신장(新疆)자치구	10.6	8.1	10.6	12.0

자료: CEIC Database.

부표 2. 최근 지역별 월 최저임금 기준

(단위: 위안, %)

권역	성·직할시·자치구	최저임금			인상률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동북	랴오닝(遼寧)성	900	1,100	1,100	28.6	22.2	0.0
	지린(吉林)성	820	1,000	1,150	26.2	22.0	15.0
	헤이룽장(黑龍江)성	880	880	880	29.4	0.0	0.0
동부	베이징(北京)시	960	1,160	1,260	20.0	20.8	8.6
	톈진(天津)시	920	1,160	1,310	12.2	26.1	12.9
	허베이(河北)성	900	1,100	1,320	20.0	22.2	20.0
	산둥(山東)성	920	1,100	1,240	21.1	19.6	12.7
	상하이(上海)시	1,120	1,280	1,450	16.7	14.3	13.3
	장쑤(江蘇)성	960	1,140	1,320	12.9	18.8	15.8
	저장(浙江)성	1,100	1,310	1,310	14.6	19.1	0.0
	푸젠(福建)성	900	1,100	1,200	20.0	22.2	9.1
	광둥(廣東)성	1,030	1,300	1,300	19.8	26.2	0.0
	하이난(海南)성	830	830	1,050	31.7	0.0	26.5
	산시(山西)성	850	980	1,125	18.1	15.3	14.8
중부	안후이(安徽)성	720	1,010	1,010	28.6	40.3	0.0
	장시(江西)성	720	720	870	24.1	0.0	20.8
	허난(河南)성	800	1,080	1,080	23.1	35.0	0.0
	후베이(湖北)성	900	1,100	1,100	28.6	22.2	0.0
	후난(湖南)성	850	1,020	1,020	27.8	20.0	0.0
서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900	1,050	1,200	32.4	16.7	14.3
	광시(廣西)자치구	820	820	1,000	22.4	0.0	22.0
	충칭(重慶)시	680	870	1,050	0.0	27.9	20.7
	쓰촨(四川)성	850	850	1,050	30.8	0.0	23.5
	구이저우(貴州)성	830	930	930	27.7	12.0	0.0
	윈난(雲南)성	830	950	1,100	22.1	14.5	15.8
	티벳(西藏)자치구	950	950	1,200	30.1	0.0	26.3
	산시(陝西)성	760	860	1,000	26.7	13.2	16.3
	간쑤(甘肅)성	760	760	980	22.6	0.0	28.9
	칭하이(青海)성	770	920	1,070	28.3	19.5	16.3
	닝샤(寧夏)자치구	710	900	1,100	26.8	26.8	22.2
	신장(新疆)자치구	960	1,160	1,340	20.0	20.8	15.5

자료: CEIC Database.